

남한에서의 북한방송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이창현

(국민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I. 서론

북한관련 연구는 국제적·국내적 정치상황의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구 소련의 붕괴, 동서독의 통일, 남북한 동시 UN 가입 등의 유화적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관련 연구가 체제 화합적인 온건론을 띠기도 했으며, 김일성 주석의 사망,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간의 충돌 등의 위기적 상황전개에 따라 북한관련 연구가 체제 갈등적인 강경론을 띠기도 하였다.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연구의 성격에 있어서도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로 설정했을 경우 북한방송은 통일후 민족공동체 구성을 위한 중요매체로 이해되었으나, 북한을 '타도해야 할 괴뢰도당'으로 설정했을 경우 북한방송은 적대국의 심리전 매체쯤으로 이해되었다. 이렇듯 북한방송연구는 시대변천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고, 연구의 초점도 바뀌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에서의 북한방송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과 그 변화추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즉 시대별로 어떠한 연구자

* 본 논문은 1998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임.

들이 어떠한 주제의 연구를 해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기존 문헌연구를 검토함은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내용분석기법(content analysis)을 통하여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내용과 추이를 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들 분석은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경향을 일차적으로 기술(description)하여 현재의 연구상황을 평가하고 나아가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논문은 필자 스스로의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역사¹⁾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필자가 느낀 주관적 상황과 당시의 객관적인 분석자료에 결합하여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내용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 스스로 전체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료를 직접 조사해보려 했으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의존했음을 밝힌다.

II. 남한에서의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현황

1.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전사(前史)

분단 이후, 남한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연구는 이들 정보에 접근 가능한 정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

1) 필자는 1988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대학교와 한국사회언론연구회(현재의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방송개발원에서 북한방송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왔다.

<표 1> 국토통일원의 북한언론관련 보고서 출간현황

연도	보고서 제목
1972	북한의 대외선전에 관한 연구
1973	북한의 언론제도연구
1973	북한의 대남 대상별 선전정책과 대비책
1973	북한의 선전·선동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1974	북한의 언론출판분야 사업 총화집, 1953-1954
1974	북한의 언론출판분야 사업 총화집, 1949-1970
1974	북한의 언론통제 정책에 관한 연구
1978	북괴의 대외선전방식에 관한 연구
1979	북한의 신문·방송
1987	북한방송 용어집

로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통제는 분단구조를 재생산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북한언론에 대한 연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언론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표 1>에서와 같이 주로 국토통일원(1972, 1973, 1974, 1978, 1979, 1987)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통일원의 연구와 함께 북한언론연구를 시작한 곳은 신문사였다. 1971년 경향신문사는 안보통일연구위원회(후에 안보통일연구소로 개칭)를, 1972년 중앙일보사는 공산권조사연구소(후에 동서문제연구소로 그리고 통일문제연구소 개칭)를 신설했다. 그리고 1972년 동아일보는 안보통일문제조사연구소(후에 통일연구소로 개칭)를 신설하여 북한언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성과물로는 경향신문사의 『북한신문문제에 관한 연구』(1973), 중앙일보사의 『북한의 매스컴에 관한 연구』(1973), 동아일보사의 『북한의 대외선전에 관한 연구』(1973) 등이 있다(김영주, 1987).

일련의 국토통일원 및 일간신문사의 연구가 본격화된 1972년은 7·4 공동성명으로 인해 남북한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로 바뀌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남한사회는 북한사회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때문에 국토통일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북한 언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1970년대의 북한언론연구는 정부나 신문사의 필요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 때문에 이들 연구는 정책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정책연구의 예로서 1977년 정보기관에서는 소장 사회과학도들이 모이는 「자유아카데미」를 만들어 북한연구를 권장했는데, 이때 북한언론에 대한 연구도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김영주, 1998: 19). 이러한 연구의 성과물들은 기존의 북한자료를 집대성한 책자인 극동문제연구소(1980)의 『북한전서』와 북한연구소(1983)의 『북한총람』에 모아졌다.

학문적 차원에서 북한언론을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대표적 연구자로서 한병구(1978)와 이광재(1979)는 박사학위논문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언론이 담당하는 대중동원성에 대해서 연구했다. 한편, 몇몇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은 사회주의 언론관련 외국저술의 번역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사회에서 북한의 언론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문적·사회적 제한이 있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역서로는 Buzek(박유봉 역, 1980), 로트(최정호 역, 1984), Inkeles(이규중 역, 1987)의 책들이 있다. 북한언론에 대해 직접적인 저술을 한 사람은 이상두(1979)로서 그의 책은 대안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한언론에 대한 일차적인 참고자료가 되었다.

<표 2> 사회주의 언론연구의 주요저술

저자/ 역자(발행년도)	책이름	출판사
자유평론사 편 (1976)	공산주의와 언론	
이상두 (1979)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 -북한언론의 본질과 비판	범우사
Anton Buzek/ 박유봉역(1980)	공산주의 언론비판	형설출판사
Fred Siebert 외/ 이규중·한병구 역(1982)	매스컴 4이론	대학문화사
파울 로트/ 최정호 역(1984)	소련의 보도기관과 정보정책	정음사
Alex Inkeles/ 이규중 역(1987)	소련의 여론	대학문화사

이와 같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어지는 북한언론연구는 북한 방송관련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회주의 언론일반 및 신문에 대한 연구였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언론연구의 범주에 보통 신문이 주된 영역을 차지했던 관행²⁾과 더불어 방송과는 달리 북한신문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열람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방송은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당시 상황에 기인한다. 이 때문에 방송연구는 신문에 비해서 활성화 되지 못했으며(강현두, 1988) 그만큼 학문적 축적도 많지 않았다.

2.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전개

북한방송관련 학위논문의 효시는 이영익(1973)의 「남북한 방송의 비교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이며, 이어 이혜영(1976)의 「북한방송

2)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에서 신문을 비롯한 잡지, 팜플렛 등이 주된 선전 선동의 수단이었으며 텔레비전 미디어는 최근 들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에 대한 분석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가 나왔다. 한편, 북한방송관련 연구논문의 원조는 1970년대 말에 나온 정형수(1979)의 논문으로 1차자료를 중심으로 북한방송의 체계와 구조를 전반적으로 소개해주었다. 이러한 초기의 논문은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방송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나 후속연구로 이어지는 못했다. 1980년대 초에는 서극성의 논문(1984)이 북한방송에 대한 연구로서 맥을 이어갔는데 이 연구는 1970년대의 연구성과를 총정리한 『북한총람』, 『북한전서』를 재정리하거나 북한의 『조선중앙년감』의 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전두환 정권기까지 북한방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학문적으로도 사회주의언론 및 북한신문연구의 맥은 이어졌지만, 방송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많지 않았다. 당시 북한방송관련 내용은 연구를 위한 목적일지라도 철저히 통제되었다. 그런데 소련의 몰락, 동서독의 통일 등에 따라 냉전적 분위기가 바뀌자 북한방송내용은 연구자들보다 일반시청자들에게 먼저 공개되었다. 1987년에 KBS의 ‘남북의 창’과 MBC의 ‘통일전망대’가 정보기관에서 제공되는 북한방송의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방송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때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제한 때문에 불가능했던 북한방송연구가 활성화되었다. 1989년 강현두와 이창현은 《방송문화》에 북한방송에 대한 이념, 구조, 역사, 언어 등의 내용을 7회에 걸쳐 게재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적 관심과 맞물려 북한방송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를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방송의 내용과 남한주민에 대한 영향력, 남북한 방송교류 및 통합방안 등의 연구가 계속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에 대한 연구의 시각은 크게 바뀌

<표 3> 북한언론연구의 주요저술

저자(발행년도)	책이름	출판사
유재천(1989)	북한의 언론	을유문화사
최 명(1990)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이정춘·전석호(1991)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청림출판
김영주·이범수 공편(1991)	북한언론의 실상	나남
남북문제연구소(1993)	남북한 방송개방환경은 어떠한가	민족통일협의회
김영주·이범수 공편(1994)	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한울
강현두(1997)	북한 매스미디어론	나남
김영주(1998)	현대북한 언론연구	나남

었다. 북한에 대한 체제비판과 분단 지향적인 시각도 어느 정도 체제 화합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시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으며, 연구내용의 질적인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 1980년대 후반 유재천(1989)은 『북한의 언론』을, 최명(1990)은 『북한개론』을 편집했는데, 이는 북한언론연구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었다. 당시까지 북한언론에 대한 연구는 주로 2차자료인 1970년대의 정책연구서에 의존해왔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진학자들은 1차자료인 북한의 원전을 필요로 했다.

북한원전³⁾에 대한 입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원전을 편집

- 3) 북한언론과 관련된 원전 가운데 신문리론은 북한의 신문학(언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는 대부분 신문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방송과 관련된 내용은 방송리론, 방송원화술 등의 책에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문리론보다 몇 년 후에 비공개적으로 유통되었다.

<북한언론관련 원전>

김응섭·김승렬·리규정·김희동 공저(1966), 『편성리론과 실천』, 동경: 재일본조선출판인협회.

배순재·라두림(1967), 『신문리론』, 동경: 재일본조선 출판인협회(김영주·이범수, 1991에 수록됨).

리응필(1985), 『조선신문100년사』(1993년 나남에서 출판).

출판한 책으로는 김영주·이범수(1991, 1994)의 책 등이 대표적이다. 1988년 이후에는 학계에서 북한관련 문헌의 입수가 비교적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의 복사본이 쉽게 나돌았지만 아무래도 제한적이었다. 김영주·이범수는 은밀하게 흘러다니는 북한원전을 편집하여 출판함으로써 북한언론연구를 위한 방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통일과정에서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뉴스가 접해지면서, 남북한 방송교류 및 통합의 논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즉 분단국이었던가 통일을 맞이한 독일의 사례에서 남북한간 방송교류 및 통합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통일방송연구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초기의 연구는 이정춘과 전석호(1990)의 『분단국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박종수(1991)의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로 이후에도 꾸준히 동서독의 방송교류 및 통합과정을 연구하면서 남북한 방송교류 및 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왔다. 특히, 박종수(1992a, b, c), 이우승(1997a, 1997b, 1998)은 MBC와 한국방송개발원에서 꾸준히 통일방송정책 연구를 수행해왔다.

조형창·리준하(1982), 『신문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부(김영주·이범수, 1994)에 수록됨.

조선방송위원회(1985), 『방송리론』, 평양: 김일성대학출판부.

조선노동당출판사(1985), 『출판보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 해설』, 평양: 조선 노동당출판사(유재천, 1989)에 수록됨.

박재용·김영환(1988), 『방송원화술』, 평양: 예술교육출판사.

엄기영(1989), 『신문학개론』,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김원태, 1991)에 일부 수록; 김영주, 1990)에 전재됨).

그러나 김영삼 정권시기인,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북한 방송에 대한 연구는 정체 상태에 빠진 듯한 상황에 접어들었는데(강현두, 1998), 그 첫째 이유는, 김일성 사망 이후에 생각되는 남북관계에서 진전된 통일논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북한방송관련 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이 감소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북한언론관련 원전이 소개된 이후에 새롭게 충전되어야 할 순수한 학문적 열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초기에 “10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북한방송 개방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정부정책보다 한 단계 앞선 조치로서 북한방송관련 연구를 다시금 활성화시켰다. 한국방송개발원(1998a, 1998b)에서는 북한방송프로그램의 1주일치를 분석한 「북한방송 프로그램 분석」, 「방송개방에 관한 정책 보고서」 등을 발간하면서 방송개방의 정책적 논의를 체계화하고 있다. 아울러 1998년 한국방송인총연합회는 “남북한 방송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방송협회는 “북한방송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한편, 강현두(1997)는 『북한 매스미디어론』을, 김영주(1998)는 『현대북한언론연구』를 출판했다. 이들 연구는 북한의 언론이념을 비롯하여, 북한의 신문과 방송 그리고 영화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에 대한 남한의 연구 등을 정리하고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내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내용분석을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기존연구로서는 1989년 한국언론학회가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한국언론학연구 30년: 성찰과 전망”이라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강현두·한균태(1989)의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찰」이라는 연구의 일부 내용과 부산경남언론학회의 창간학보에 게재된 김영주(1998)의 「북한언론에 대한 연구현황과 연구과제」라는 연구논문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강현두·한균태(1989)는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북한언론연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김영주(1998)는 포괄적인 북한언론연구의 특성을 정리했다는 의미를 갖지만, 북한방송연구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연구에서는 북한방송과 관련된 몇 편의 석·박사 학위논문, 일반논문, 연구보고서 등이 있었으며 이들의 내용적 특성과 시기별 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3가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북한방송 관련연구의 시기별 분포는 어떠한가?
그리고 주제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논문에서 북한방송 관련연구의 시기별 분포는 어떠한가? 그리고

주제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연구단체와 방송사 등의 북한방송 관련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의 시기별 분포는 어떠한가? 그리고 주제별 분포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방송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북한방송관련 연구'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방송관련 연구'라고 했을 때, 첫째,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일반적인 사회주의권 언론연구와 구분된다. 둘째, 방송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신문이나 영화와 구분되며, 셋째, 관련이라는 단어는 북한방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통일방송이나 방송교류 등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주의권 언론연구, 특히 중국이나 소련의 언론연구는 본 분석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만 전체사회주의 언론이나 북한신문연구 등을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방송관련 연구와 비교해보기 위해서였다.

본 논문은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경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분석대상을 연구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일반잡지에 게재된 글은 연구논문의 형식에 벗어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분석에 포함된 일반연구논문집은 방송위원회의 《방송연구》, 언론학회의 《언론학보》, 방송학회의 《방송학연구》, 기자협회의 《저널리즘》이었다. 방송협회의 《방송문화》나 언론연구원의 《신문과

<표 4> 북한방송 관련연구의 분석대상

논문 성격	포함 논문
석박사학위논문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학위논문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회지연구논문 일반연구논문	언론학보, 방송학연구(현 한국방송학보) 신문연구, 방송문화연구, 저널리즘, 방송연구
연구기관 성격	포함 기관
정부기관 관련연구단체	통일원, 공보처* 언론연구원, 방송개발원(현 방송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공보처의 연구는 대부분 대외비의 형태로 출간되어 정책적인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방송》의 경우 몇몇 중요한 연구성과도 있으나 대체로 방송관련 세미나를 정리하거나, 논평하는 수준의 글이 많아서⁴⁾ 연구논문의 범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내용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Harold Lasswell⁵⁾의 커뮤니케이션과정 모형(Sender - Message - Channel - Receiver - Effect)을 원용하여 분석유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북한방송관련 연구를 분석함에 있어서 전체 북한방송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방송일반이라는 항목으로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송신자(Sender)의 항목에서 북한방송의 구조와 정책, 이념 등과 관련된 논문을 포함하였다. 편성 및 내용(Message)의 항목에서는

4) 북한방송연구는 주제의 특성상 일반적인 잡지의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으나, 이것이 학문적 틀을 갖춘 연구라고 보기 힘들며, 대상잡지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한방송관련 주제의 글이 많이 게재된 잡지는 《방송문화》(방송협회), 《북한》(북한문제연구소), 《정보시대》(정보문화센터), 《말》(민중언론운동협의회)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호국》, 《자유공론》 등의 잡지에도 북한방송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꽤 실렸다.

5) Harold Lasswell(1948),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Communication in Society," in L. Bryson(ed.), *The Communication of Ideas*, New York: Harper, pp. 32-51.

<표 5> 북한방송 관련연구의 내용별 분류범주

	분류범주	포함 내용
1. 북한 방송 연구	1) 방송일반	방송에 대한 포괄적인 논문(교육포함)
	2) 송신자(Sender)	북한방송(언론)의 구조, 이념 및 정책
	3) 편성 및 내용(Message)	북한방송(라디오, TV)의 내용분석
	4) 채널(Channel)	북한방송의 채널과 기술
	5) 수용자 및 효과	북한방송수용자 및 효과(Receiver & Effect)
2. 통일 방송 연구	6) 방송교류	남북한방송교류
	7) 방송개방	북한방송개방 정책
	8) 통일방송	통일방송
비교 <사회주의 언론 및 북한신문, 심리전 연구>		
	1) 사회주의언론	소련 및 중국의 언론
	2) 북한신문	북한신문의 정책 및 논조
	3) 심리전 연구	대남심리전, 선전선동

* 석박사학위논문에서 사회주의 언론, 북한신문, 심리전연구를 포함시킨 이유는 북한 방송 관련연구와 기타부문의 연구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연구논문의 경우 범위를 확장할 경우 전체대상 연구논문이 너무 넓어져서 북한방송연구 및 통일방송 연구로 한정하였다.

북한의 방송(라디오, TV)에 대한 논문을 포함하였고, 채널(Channel)의 항목에서는 북한방송의 기술적 특성과 채널의 구성 등의 논문을 포함하였다. 수용자 및 효과(Receiver & Effect)의 항목에서는 북한방송시청 및 방송효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통일방송관련 연구의 항목에서는, 방송교류, 방송개방, 통일방송의 주제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논문을 찾기 위해서 몇몇 기존 연구 및 자료집⁶⁾

6) <북한관련 연구경향 분석 논문>

강현두·한균태(1990), 한국 국제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찰. 언론학회편, 『한국언론학연구 30년: 성찰과 반성』, 나남.

김영주(1997), 「북한언론연구의 현황과 개선방향」, 부산경남언론학회(편), 『언론학연구』.

<방송관련 문헌목록>

한국방송개발원(1992), 『방송학관련 연구실태 및 경향분석연구』.

을 활용했으나, 가장 많이 의존한 정보원은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이다. 국회도서관의 석박사학위 논문목록과 정기간행물 색인집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대상논문으로는 북한, 사회주의, 공산권과 언론, 매스 미디어, 방송, 신문 등의 키워드가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방송교류, 남북언론교류, 통일방송, 심리전 등의 키워드가 있는 것을 선정하였다.

한편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시기별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구분을 정권의 변화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통일정책이 변화해왔고 이것이 다른 어떠한 구분보다도 명확한 시대구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정권기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전두환정권기는 1980년부터 1987년까지, 노태우정권기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김영삼정권기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로 정하였다. 이들 정권기에는 각각 독특한 통일정책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박정희정권기에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전두환정권기에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노태우정권기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노태우정권기의 통일방안은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대원칙을 제시하면서 종래의 소극적·명분적 통일정책에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되었다.⁷⁾ 한편 김영삼정권기에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진석(1992), 『한국언론학 박사·석사학위논문 총목록』, 나남.

김성호(1984), 『한국방송관계 문헌색인』, KBS.

서울대학교언론정보학과(1988-1977), 『석사박사학위논문목록집』(1권-12권).

7) 황선대(1995), 『남북한 통일방안』, 한림과학원 편,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상), 소화, 133-189쪽.

IV. 연구결과

1. 연대별 연구빈도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특성을 개략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단행본, 학위논문, 일반논문, 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시기별로 나누어 그 빈도수를 파악해보았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가 노태우정권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19개에서 노태우정권기 이전에는 9개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110개였다. 이는 1988년 이후에 사회주의권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냉전구도가 많이 소멸함에 따라 북한방송관련 연구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노태우정권기에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김영삼정권기에는 오히려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석박사 학위논문의 내용적 특성

북한언론관련 학위논문 중에서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8편 모두가 사

<표 6> 시기별 북한방송관련 문헌의 생산추이

	박정희 정권기	전두환 정권기	노태우 정권기	김영삼 정권기	합계
단행본			5	3	8
학위논문(석사)*	2	2	4	7	15
일반논문*	2	2	43	24	71
연구기관, 방송사 보고서**		1	7	17	25
합계	5	5	59	51	119

* 학위논문과 일반논문의 경우 북한의 방송관련 내용만을 선정했다.

** 연구기관은 한국방송개발원, 언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등을 방송사에는 KBS, MBC를 포함시켰다.

<표 7> 북한방송관련 석사박사학위 논문의 연도별 생산추이

구분 연도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석사)		전체	
	박사		석사		방송	전체	방송	전체
	방송	전체	방송	전체				
1966						1		1
1973					1	2	1	2
1975						1		
1976			1	1			1	1
1978		1						1
1979		1				1		2
1981						3		3
1982				2				2
1983						1		1
1985					1	2	1	2
1986				1				1
1987					1	2	1	2
1988		1		1				2
1989				2		2		4
1990				5	1	4	1	9
1991		1		1	1	3	1	5
1992		1			2	4	2	5
1993				1		3		4
1994		1	1	2		4	1	7
1995		2			3	5	3	7
1996					2	7	2	7
1997					1	3	1	3
1998						2		2
합계		8	2	16	13	50	15	74

* 1988년은 1학기 논문의 경우만 산출한 것임.

회주의 언론일반 및 북한신문에 대한 것으로서 북한방송에 관련된 것은 한편도 없었다. 석사학위논문의 경우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었는데, 일반대학원보다 특수대학원의 논문 편수가 훨씬 많았다. 특수대학원의 전체 사회주의언론 및 북한언론에 대한 논문은 50편이었으나 일반대학원의 논문은 16편에 그쳤고 방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의 경우도 특수대학원이 13편, 일반대학원

<표 8> 북한방송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별 생산추이

구분 연도	북한방송					통일방송				비교			전체		
	방송 일반	송신 자	프로 그램	채널 기술	수용 효과	소계	방송 교류	방송 개방	통일 방송	소계	사회 주의 언론	북한 언론	심리 전	소계	합계
1966													1	1	1
1973	1					1						1		1	1
1975													1	1	1
1976			1			1									1
1978										1				1	1
1979											1	1	1	2	2
1981										1		2	3	3	3
1982											1	1	2	2	2
1983												1	1	1	1
1985			1			1						1	1	2	2
1986										1			1	1	1
1987	1					1						1	1	2	2
1988										1		1	2	2	2
1989										2	1	1	4	4	4
1990			1			1				4	2	2	8	9	9
1991		1				1					2	2	4	5	5
1992							1		1	2	1	2	3	5	5
1993										1	1	2	4	4	4
1994							1			1	2	3	1	6	7
1995		1	1			2	1			1	3	1	4	7	7
1996							1	1		2	2	1	2	5	7
1997				1		1						2	2	3	3
1998										1		1	2	2	2
합계	2	2	4	1		9	4	1	1	6	20	14	25	59	74

이 2편으로 특수대학원에서 보다 많은 방송관련 석사학위논문이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언론관련 특수대학원과 행정대학원, 정보대학원, 홍보대학원 등이 다수 신설되어 석사학위논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방송관련 석사학위논문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분석유목에 맞추어 주제별 분류를 해보았다. 크게 보아 북한방송연구의 범주에 들어가는 논문의 수는 9개, 통일방송연구의 범주에

들어가는 논문의 수는 6개를 차지했다. 그리고 심리전, 선전선동에 대한 논문의 수는 25개, 사회주의 언론일반에 대한 논문의 수는 20개, 북한언론일반(신문포함)에 대한 논문의 수는 14개였다. 한편 북한의 언론을 심리전, 선전선동으로 파악하여 연구하는 학위논문의 경향은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북한방송 및 통일방송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수가 전체 사회주의언론 및 북한신문과 관련된 논문과 비교해서 상당히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일반 연구논문의 내용적 특성

일반연구논문의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위논문과 동일한 분석유목을 갖고 분석해보았다. 이 결과 북한방송연구는 36편, 통일방송연구는 35편을 차지했다. 북한방송연구의 36편 중 22편에 해당되는 내용은 방송일반에 대한 총론적 연구논문이었다. 나머지는 송신자연구가 6편, 메시지연구가 5편, 채널(기술)연구가 2편이었으며, 수용자 및 효과와 관련된 내용은 1편에 불과했다. 이것도 북한의 수용자에 대한 효과연구는 아니었고 남한수용자들이 북한 프로그램을 보고 난 후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방송관련 일반연구논문이 아직도 방송일반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통일방송연구는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노태우정권기였던 1990년, 1991년, 1992년에 집중되었고, 다시 김영삼정권기였던 1997년과 1998년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주제별로 분류해보았을 때, 통일방송과

<표 9> 일반연구논문의 주제별 특성과 추이

구분 연도	북한방송						통일방송			종합	
	방송 일반	송신 자	프로 그램	채널 기술	수용 효과	소계	방송 교류	방송 개방	통일 방송	소계	전체
1968	1					1					1
1979	1					1					1
1984	1					1					1
1987	1					1					1
1989	4	3				7					7
1990	3	2	1	2		8	2		1	3	11
1991	5	1				6	2	2	1	5	11
1992			3			3	8		3	11	14
1993			1		1	2					2
1994							1			1	1
1995	2					2			1	1	3
1996	1					1	1			1	2
1997	3					3			8	8	11
1998								4	1	5	5
합계	22	6	5	2	1	36	14	6	15	35	71

관련된 내용이 15편, 방송교류와 관련된 내용이 14편, 방송개방에 관련된 내용이 6편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연구논문의 경우 빈도에 있어서 연도별 기록이 많다. 이는 연구논문을 구성하는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방송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송재극(1990, 1998)의 논문은 남한과 북한 방송의 기술적 측면을 비교·검토해보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4. 연구소 및 방송사 보고서의 특성

북한방송관련 연구를 가장 체계적으로 담당해온 연구기관은 한국방송개발원이다. 한국방송개발원에서는 이제까지 9편의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는데, 대체로 방송 교류 및 개방 그리고 통일 이후의 방송체계 모색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였다. 김영삼정권 초기에는 이창현(1993, 1994), 송재극(1995) 등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김광호(1995)를 거쳐 최근에는 이우승(1997b, 1998a, 1998b)에 이어져 북한 방송 내용분석과 방송개방의 전략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북한방송과 관련된 방송기술연구(1992, 1994, 1995a)도 많다. 한국언론연구원의 경우, 독일통일을 사례로 하여 통일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1991)가 있었으며, 남북한 언론교류(1992)에 대한 연구 그리고 통일언론정책(1995)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통일 이후의 방송정책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연구(1992)를 수행하였다.

한편 KBS, MBC는 남북한 방송교류와 통일방송구축의 담당자로서 북한방송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였다. KBS에서는 남북교류협력국이 1992년 설립되어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 주된 연구성과로서는 1992년 방송학회와 함께 연구한 「남북한 연립주의적 방송교류 방안에 대한 연구」와 「대성동 주민대상 남북한 방송 시청취 반응 및 의식조사」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1993년 남북교류협력국이 폐지된 후 1996년까지 북한방송관련연구는 크게 진척되지 않다가, 1997년 통일방송연구소로 다시 부활하여 최근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KBS 정책연구실은 기관지인 《방송문화연구》를 통하여 통일방송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기획 게재하고 있다. 반면, MBC는 북한방송관련 연구를 KBS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통일방송연구소를 개소한 1996년 이후에 지속적인 출간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박종수(1991), 유동희(1996)와 이우승(1996, 1997)은 일련의 통일관련 연구들을 기획·출

간하는 데 기여를 많이 했다.

전체적으로 연구기관에서는 학술논문보다는 정책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특히 노태우정권기와 김영삼정권기에는 많은 연구가 집중되었다.

V. 결론

북한방송관련 연구는 1970년대 북한언론 전반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말 본격적인 방송 교류 및 통합 연구로 이어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연구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통일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정권교체에 따라 정부의 통일정책이 변화할 때마다 방송관련 연구의 방향과 성격도 변화해왔다. 북한방송관련 연구는 이러한 정책연구(policy oriented studies)적 속성을 갖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게 된다.

첫째, 북한방송관련 연구가 정책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과 성격이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과 부합되어야 했다. 특히 북한방송관련 연구가 여타의 정책연구보다 훨씬 정부의 정책방향과 긴밀한 관계를 보이는 것은 북한방송관련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가 다른 북한자료보다도 훨씬 통제가 심했기 때문이다. 즉 방송과 관련된 1차자료에 접근 가능키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연구제안을 할 수 없었고 이 결과 북한방송관련 연구는 초기부터 한정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노태우정권기부터는 비교적 자유롭게 연구방향이 설정되었고 몇몇

북한언론관련 원전의 출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관계를 맺고있는 국책연구기관(한국방송개발원, 한국언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나 방송사(KBS, MBC) 그리고 각종 연구기금(방송문화진흥회) 등은 정책적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지원하므로써 연구의 큰 방향을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방송관련 연구는 냉전시대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북한방송을 분단 이후 대치하고 있는 적대국의 방송으로서 인식했으며 북한방송이 대남 심리전의 차원에서 남한주민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초기의 북한방송관련 연구는 적성국 방송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방송내용 분석의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통일원의 연구와 신문사 산하 북한관련 연구소의 연구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렇기에 1980년대 말 북한의 언론관계 원전이 소개되기 이전까지 이들 정책연구서가 주된 참고문헌이 되었고 그 결과 냉전적 시각의 내용이 연구에 담겨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냉전적 시각은 북한언론을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비판하였기 때문에 북한사회내에서 북한언론이 담당하는 고유한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비공개적으로 북한원전이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김영주, 이범수(1991, 1994) 등에 의해 원전이 공식 출판되면서부터 북한언론에 대한 사회주의적 일반기능과 북한내의 독특한 역할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구들이 나왔다. 이들 원전의 소개와 적극적인 수용은 기존 북한방송 관련 연구가 지나치게 냉전적 시각을 담아냈다는 비판에서 이루어진 반작용(강현두, 1988)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북한방송관련 연구는 정책보고서의 형태나 세미나의 발표문으로 출간된 것이 많았고 순수한 학술논문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방송교류 및 통합의 사회적 논의가 많아지면서 방송관련 기관은 앞다투어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할 때는 많은 북한방송관련 연구가 출간되었지만(1990, 10편; 1991, 11편; 1992, 14편),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급격히 감소(1993, 2편; 1994, 1편; 1995, 3편)하였다.

이 결과 북한방송관련 연구자들은 방송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간략한 정책연구를 내는 것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세미나의 보고서는 대체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를 논문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정책보고서가 학술연구로서 크게 발전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정책보고서가 대외비로 묶여 학술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이 정책보고서를 독립된 학술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북한방송관련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보고서는 몇몇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영역에만 집중되었다. 한국방송개발원, 한국언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대부분의 연구주제가 방송교류(한국방송개발원, 1992; 한국언론연구원, 1992), 방송개방(한국방송개발원, 1993; 1998), 통일방송(한국방송개발원, 1994; 1995a; 1995b) 등으로 집중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이에 따라 북한방송의 정책이나 이념과 구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는 김영주(1995, 1997b), 이범수(1997)의 논문과 같이 개인적 차원의 연구에 머물렀다.

강현두와 한군태(1990)는 공산권 연구의 30년을 회고하면서 “오랫 동안 냉전논리 속에서, 특히 남북간 대치상황에서 공산권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소홀히 취급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사회주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유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161쪽)라고 말했다. 이 말이 있는지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북한의 방송연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노태우정권기의 개방정책에 따라 사회주의권 연구와 함께 북한연구의 봄이 있었으나 지난 몇 년 사이 봄은 거품처럼 사라졌다. 통일지향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북한방송관련 연구를 보다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에서는 러시아 및 중국 연구(Russian & Chinese Study)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연구가 정확한 외교적 정책판단과 방향수립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북한방송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방송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른 한편, 우리의 북한방송관련 연구에 있어서 최근에는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studies)가 그리 많지 않았다. 언론학계에서 주도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언론학자만으로 연구하기에는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복잡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겠다. 특히 방송통합과 관련해서 사회학·정치학적 연계가 필요하며, 방송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사회심리학적 연계 등이 절실하다.

▣ 부록

북한방송 관련연구 총목록*

1. 저술

- 자유평론사 편(1976), 『공산주의와 언론』.
- 이상두(1979),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 - 북한언론의 본질과 비판-』, 범우사.
- 안토니 부제크/박유봉 역(1980), 『공산주의 언론비판』, 형설출판사.
- 프레드 시버트 외/이규종·한병구 역(1982), 『매스컴 4이론』, 대학문화사.
- 폴 로쓰/최정호 역(1984), 『소련의 보도기관과 정보정책』, 정음사.
- 알렉시스 잉켈스/이규종 역(1987), 『소련의 여론』, 대학문화사.
- 유재천(1989), 『북한의 언론』, 을유문화사.
- 최 명(1990),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 이정춘·전석호(1991), 『분단국의 통일과 방송정책』, 청림출판.
- 김영주·이범수 공편(1991),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나남.
- 유재천(1992), 『북한언론의 실상』, 통일문제연구소.
- 남북문제연구소(1993), 『남북한 방송개방환경은 어떠한가』.
- 김영주·이범수 공편(1994), 『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한울.
- 강현두(1997), 『북한의 매스미디어』, 나남.
- 김영주(1998), 『현대북한 언론연구』, 나남.

* 본 논문의 부록에 실린 문헌 총목록을 만들에 있어서 강현두(1997), 김영주(1997)의 선행연구를 많이 참조했음을 밝힌다.

2. 석사·박사학위논문 목록*

《박사학위논문》

<1970년대>

한병구(1978), 「중공의 커뮤니케이션과 대중운동에 관한 연구」, 경희대.
이광재(1979), 「북한신문의 대중동원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

<1980년대>

김원태(1987), 「한국과 중공신문의 상대국 보도성향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 -인민일보와 서울신문을 중심으로」, 연세대.

<1990년대>

안춘옥(1991), 「북한신문의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한은경(1992), 「중국변혁기의 언론에 관한 일 연구」, 성균관대.
주봉의(1994),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언론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최병진(1995), 「변혁기 소련 언론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용수(1995), 「중국의 시민사회적 특성과 언론체계의 변화」,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60년대>

김인동(1966), 「북한의 선전선동 기구와 대남선전 정책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중에 신문의 북한보도태도와 관련된 논문이 많았으나, 직접적으로 북한언론과 관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밑줄 친 논문'은 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임을 표시한다.

<1970년대>

- 이영익(1973), 「남북한 방송의 비교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조형재(1973),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신문대학원.
김성완(1975), 「북한의 대남 정치선전」, 서울대 신문대학원.
이혜영(1976), 「북한방송에 대한 분석 연구 - <평양방송>을 중심으로」, 서울대.
이천규(1979), 「북한의 여론조작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1980년대>

- 박영환(1981),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차재익(1981), 「북한의 심리전과 대응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이표환(1981), 「중공의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 동국대행정대학원.
김인술(1982), 「북한의 대남선전에 관한 연구 - 대남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
정성자(1982), 「북한 대중매체의 기능」, 서울대.
황동규(1983),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서상호(1985), 「북한 방송에 대한 연구 - 대남 심리전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신문 방송대학원.
유영근(1985), 「현대심리전 연구 - 남북한 경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육대학원.
김상건(1986), 「소련방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김영관(1987), 「북한의 대남선전방송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이병도(1987),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원.
박갑수(1988), 「북한의 대남심리전 내용 및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김근수(1989), 「북한의 언론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박정무(1989), 「북한의 대외선전에 관한 연구 - 해외 친북한 단체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대학원.

정용준(1989), 「V. I. Lenin의 선전선동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

정석현(1989), 「소련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1990년대>

김상준(1990), 「남북한 방송언어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김현식(1990), 「군중노선에 있어 북한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앙대.

송영구(1990), 「북한의 대남 심리전 전개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이수범(1990), 「개혁정책에 따른 소련언론의 변동에 관한 연구 - 광고 현상을 중심으로」, 서강대.

이병관(1990), 「한국과 소련언론의 보도변동 비교연구: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과 7.7선언을 전후로」, 서강대.

김준성(1990), 「중국에 있어서 언론자유성의 정치적 성격과 한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한창규(1990), 「북한의 언론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허종국(1990), 「'80년대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 - Mass Media를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대학원.

허진(1990), 「사회주의적 언론자유이론에 대한 사상적 고찰」,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학로(1991),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안홍근(1991), 「북한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이승섭(1991), 「남북한 신문의 통일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중앙대

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최영훈(1991), 「북한신문의 갈등관리성에 관한 연구 -노동신문 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노성대(1992), 「남북한 방송교류전망에 관한 연구 -방송기자의 의식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이수복(1992), 「통일정책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심리전 실태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임봉춘(1992),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효과분석」,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장영국(1992), 「남북통일과 방송정책 -남북한 방송교류의 정책적 과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신문방송고위과정 수료논문.

김상훈(1993),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와 그 대응방안: 70년대 이후의 대남심리전 양상」, 원광대 행정대학원.

박현윤(1993), 「북한 언론이론과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 행정대학원.

현운용(1993), 「북한의 심리전과 대응책에 관한 고찰」, 경기대 행정대학원.

나도삼(1993),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기에 있어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하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성범(1994), 「북한의 대남심리전 활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오세원(1994), 「핵문제에 관한 남북 신문의 보도태도 연구 -북한·미국 의 고위급회담에 관한 보도를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이동근(1994), 「북한관련 TV프로그램의 수용자 분석 -남북한 효율적 방송교류를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외국어대.

- 이재일(1994), 「남북한 언론의 남북고위급회담 보도태도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 조영희(1994), 「북한의 언론,출판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언론관과의 비교」, 동국대 정보대학원.
- 서화교(1994), 「레닌의 선전선동론을 통해 본 불세비키의 대중교회정책」, 한국의국어대.
- 박병선(1995),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방송의 역할 -중앙텔레비전의 발영내용을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 유동희(1995),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 -분단국 비교를 중심으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 정성채(1995), 「북한의 방송정책과 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 차천호(1995), 「북한신문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 안병익(1995),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 언론의 변화에 관한 연구 -신문보도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 국제대학원.
- 구교영(1996), 「북한 언론의 한국관련 보도에 관한 분석 -<로동신문>의 보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행정대학원.
- 구환근(1996), 「남북한 방송교류 방안 연구 -독일의 사례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 김 용(1996), 「체제접근과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남북한 방송의 개방과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민권기(1996), 「북한의 대남심리전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 진일선(1996), 「남북한 심리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 최강호(1996), 「중국사회의 개방과 언론정책의 변화」, 동국대 행정대학원.
- 김윤휘(1996), 「중국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한국어 언론매체에 관한 연구 -신문, 방송, 출판을 중심으로」, 한양대 행정대학원.

- 박명삼(1997),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TV방송시설 -TV방송방식의 일원화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강병철(1997), 「북한의 대남심리전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 유영철(1997),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 노석규(1998), 「통일시대를 대비한 대북심리전에 관한 연구」, 경남대 행정대학원.
- 정혜정(1998), 「중국식 사회주의의 언론정책」,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연구논문》

<1960년대>

- 이동준(1968), 「북괴의 언론」, 『한국의 언론』 (1), 문화공보부.

<1970년대>

- 정형수(1979), 「북한방송에 관한 고찰」, 《신문연구》, 54-79쪽.

<1980년대>

- 서극성(1984), 「북한방송의 실상」, 《방송연구》 가을호, 149-161쪽.
- 김영주(1987), 「북한의 언론정책과 언론 구조」,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강현두(1989), 「북한의 방송」, 유재천 편, 『북한의 언론』, 을유문화사, 139-182쪽.
- 강현두·이창현(1989), 「현대 북한방송의 이념과 구조」, 강현두 편, 『한국방송론』, 나남, 575-596쪽.
- 서정우(1989), 「북한의 언론」,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 한국언론연구원총서 7, 411-444쪽.

- 안춘옥(1989), 「북한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집.
안춘옥(1989), 「북한의 방송정책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1집,
146-161쪽.
- 유재천(1989), 「북한언론의 성격과 기능」, 유재천 편, 『북한의 언론』,
을유문화사, 43-84쪽.
- 이효성(1989), 「북한방송과 올바른 여론형성」, 《방송연구》 겨울호,
217-235쪽.
- 한군태(1989), 「북한의 방송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방송연구》
겨울호, 194-216쪽.

<1990년대>

- 강현두·이창현(1990), 「평양 FM방송의 프로그램편성과 내용분석」, 《방
송학연구》 여름호, 199-228쪽.
- 김인철(1990), 「남북회담을 통해 본 북한의 언론」, 《신문연구》.
- 송재극(1990), 「남북한 방송기술 정책에 관하여」, 《방송학연구》 여름
호, 229-236쪽.
- 송재극·진용옥(1990), 「남북방송 시스템의 상이성과 그 극복방안」, 《방
송연구》 겨울호, 2-34쪽.
- 유재천(1990), 「남북한의 통일언론정책」, 『분단국의 통일언론정책』, 서
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심포지움 발표논문.
- 이내수(1990),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방송교류방안에 관한 고찰」, 『방
송문화연구』 제2집, 124-125쪽.
- 이수범(1990), 「북한언론의 이데올로기적 형성 일고」, 《저널리즘》 가
을-겨울호
- 이정춘(1990), 「남북방송교류 촉진방안에 관한 고찰」, 《방송연구》 여
름호, 35-77쪽.
- 이창현(1990), 「북한방송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북한방송

- 의 매체이데올로기 형성과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신문연구》, 201-215쪽.
- 김현식(1990), 「북한의 혁명적 군중로선과 언론」, 김왕석·임동욱 외,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409-442쪽.
- 강명구(1991), 「북한언론철학과 대중교양사업의 원칙과 실제」, 『북한언론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적 연구』, 서울대 신문연구소, 5-58쪽.
- 박종수(1991),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 남북방송교류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방송과 문화』, MBC창사 30주년기념 방송연구논총, 279-407쪽.
- 강현두(1991), 「남북한 방송교류의 현황과 미래의 모색」, 『방송문화연구』 제3집, 31-42쪽.
- 강현두(1991), 「북한방송의 구조적 특성과 매체 이데올로기」,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편, 『북한언론의 특성에 관한 내용분석적 연구』, 153-180쪽.
- 김영주(1991), 「북한 언론의 성격과 그 체계」, 김영주·이범수 공편,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나남, 15-37쪽.
- 김원태(1991), 「북한의 신문학 교육」, 『대중문화의 이해』, 일진사, 140-170쪽.
- 안춘옥(1991), 「남북한 방송교류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송문화연구』 제3집, 13-30쪽.
- 원우현(1991), 「남북한 전파개방 가능성과 사회교육방송의 역할」, 사회교육방송국 세미나 발표논문.
- 이정춘(1991), 「북한방송의 수용개방과 조건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학회 방송연구회 발표논문.
- 정용준(1991), 「북한의 언론정책과 언론구조」, 『남북통일과 언론』, 한국언론연구원, 227-306쪽.
- 차배근(1991), 「북한의 언론학교육의 실태와 현황」, 『북한언론의 특성

- 에 관한 내용분석적 연구』, 서울대 신문연구소, 237-266쪽.
- 강현두·전석호(1992),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문화방송 편, 『동북아 지역에서의 방송질서 변화와 대책』, 나남, 347-358쪽.
- 김명중(1992), 「남북한 연립주의적 방송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한국방송공사.
- 김우룡(1992), 「남북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매스 미디어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국제심포지엄, 홍콩, 165-179쪽.
- 박기태(1992), 「국내신문에 나타난 남북한 언론교류 현황과 방안」, 『남북한 언론교류』,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 19, 93-132쪽.
- 박종수(1992), 「동서독 언론교류사례」, 『남북한 언론교류』,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 19, 197-264쪽.
- 박종수(1992), 「북한 및 공산권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방송학연구』, 317-347쪽.
- 박종수(1992), 「북한실정 보도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연구」, 《방송연구》 제34호, 238-279쪽.
- 박형숙(1992), 「남북 방송교류의 과제와 전망」, 『남북한 언론교류』,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 19, 53-91쪽.
- 송재극(1992), 「남북방송교류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통신개발원 주최 “남북한 통신, 방송, 우편교류 촉진에 관한 학술대회” 발표논문.
- 원우현(1992), 「남북한 언론교류의 이론과 정책적 과제」, 『남북한 언론교류』, 한국언론연구원 연구서 19, 5-51쪽.
- 유경환(1992),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문화적 교류를 위한 언론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국제심포지엄 발표논문, 17-23쪽.

- 유의선(1992), 「남북한 방송교류에 대한 일 고찰」, 『방송학연구』, 283-316쪽.
- 임병걸(1992), 「북한방송 프로그램의 제작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문화연구』 제4집, 197-226쪽.
- 정창기(1992), 「남북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국제심포지엄, 홍콩, 183-189쪽.
- 이창현(1993),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이용이 사회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변량 구조분석 -북한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위원회 편, 『방송연구』, 190-204쪽.
- 이창현(1993), 「북한 방송뉴스의 매체이데올로기와 뉴스가치」, 한국방송학회, 『방송보도론』, 나남, 255-278쪽.
- 김영주(1995), 「김정일의 주체적 출판보도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언론》 제5호, 한국사회언론연구회.
- 박영학(1995), 「광복이후 북한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광복 50주년: 한국언론의 회고와 전망』, 한국언론학회.
- 방정배(1995), 「통일지향적 언론환경조성을 위한 제언」, “통일시대 언론의 역할과 정책”, 광복 50주년기념 한독 국제심포지움, 한국언론연구원.
- 김영주(1996), 「북한 언론의 이론적 체계와 현실적 구조」,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편,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개정판), 한울, 368-401쪽.
- 유동희(1996), 「남북방송교류의 전망과 통일방송의 기능」, 문화방송, 《통일방송연구》 1.
- 김영주(1997), 「북한언론에 대한 연구현황과 연구과제」, 『언론학연구』, 부산·경남언론학회.
- 김영주(1997),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동과 언론정책의 역사적 추이」,

- 『국제커뮤니케이션과 한국사회』, 초훈 서정우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773-822쪽.
- 박종수(1997), 「통일한국의 방송제도 통합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통일한국의 방송정책”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 유재천(1997), 「분단과정에서의 방송 - 통일 지향적 역할 증대 방안」, 문화방송 창사기념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 “분단국 통합과 방송”, 221-252쪽.
- 윤영철(1997),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언론」, 『국제커뮤니케이션과 한국사회』, 초훈 서정우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121-152쪽.
- 이범수(1997), 「북한언론에 반영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주최, '97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우승(1997), 「통일후 국민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통일한국의 방송정책”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 _____(1997), 「서독TV의 통일관련 프로그램 변천」, 문화방송 창사기념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 “분단국 통합과 방송”, 59-92쪽.
- 이정춘(1997), 「통일이후 남북한 방송통합 - 새로운 남북통합 방송제도의 모색」, 문화방송 제1회 통일방송 국제포럼 “분단국 통합과 방송”, 253-296쪽.
- 최영목(1997), 「통일후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민통합방송의 역할」, 한국방송학회 주최 “통일한국의 방송정책”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 이우승(1997), 「통일방송프로그램과 국민통합」, 가을철 한국방송학회 주최 통일과 방송 분과 발표.
- 강현두(1998), 「통일의 시대, 방송의 역할」, 방송협회 주최, “북한방송 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심포지움 발표논문.
- 송재극(1998), 「북한방송개방, 기술적 과제」, 방송협회 주최, “북한방송 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심포지움 발표논문.

- 이창현(1998), 「북한방송개방, 정책적 과제」, 방송협회 주최, “북한방송
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심포지움 발표논문.
- 제성호(1998), 「북한방송개방에 따른 법적 문제」, 방송협회 주최, “북한
방송개방,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심포지움 발표논문.
- 이우승(1998), 「북한방송개방과 남북방송교류」,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주최, “남북한 방송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98 통일과 방송
심포지움 발표논문.